



읽기 전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는지 말해 볼까요?

읽으면서

이 책에는 이불, 고양이, 코코아, 목도리 등 따뜻한 것들이 한가득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따뜻함을 느끼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따뜻한 순간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추위에 떨었던 순간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추울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도 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순간이 필요하답니다.

집을 떠나와 텐트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따뜻한 느낌이 드는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차가운 느낌이 드는 단어에는 세모를 쳐 볼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따뜻하거나 차가운 단어를 더 적어 넣어도 좋고요!

코트

미소

눈발

텐트

담요

바람

서리

가족

환영

새벽

오두막집

모닥불

포옹

목도리

친구

고양이

이사

여행

초콜릿

이별



읽은 후

‘난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전쟁이나 재난을 당해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휴전’ 상태지만 예전엔 전쟁이 크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난민이고, 기후 위기 때문에 살던 집이 물에 잠기거나 부서져서 집을 떠나는 사람들도 난민이라고 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난민이고요. 그들에게 지어 주고 싶은 따뜻한 집을 그려 보면 어떨까요?